

제
11
호

춘천시신문

- 전시민 전영역의 복음화 운동
- 기독교 연합운동
-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 민족복음화 전략도시 운동
- 세계복음화 지원운동

발행·인쇄인 : 조남진 편집인 : 조충환 (200-091) 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 (0361)256-1260-1 FAX(0361)257-1260

춘천시운동본부 임시총회 성대히 끝나



김광국 목사
성시본부대표회장

춘천시성시화운동본부 99년도 임시총회가 7월1일 오후 7시30분 월드비전 강당에서 있었다. 김광국 춘천기독교연합회장 겸 춘천시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을 비롯해서 임택창 전대표회장, 김주환 순복음교회 당회장, 한 군 평화감리교회 당회장 등 목회자와 허종구 장로연합회 신임회장, 유태희 전회장 등 평신도 지도자 회원 36명이 모인 가운데 열려 일부 정관을 개정, 사무국 직제를 개편하고 복수사무총장제로 했으며 새로운 총장에 성시화기도모임 대표인 이학규 장로를 선출,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이로써 조충환 총장은 성시신문을 전담케 되었으며 신문의 모든 성시운동은 이학규 총장에 의해 추진케 되었다.

또한 총회에서는 성시본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기독교 연합회소속 모든 교회가 월회비를 내기로 했다.

사무처직제개편 새 사무총장에 이학규 장로

조충환 사무총장은 신문전담기로 모든 교회 회비 지원결정

총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김광국 목사는 춘천시 사회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이번 임시총회를 계기로 춘천시화를 활성화하자고 역설했다. 예배는 이학규 장로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합심기도, 임택창 목사의 축도로 끝났다.

한편 총회가 끝난 후 새 사무총장에 선출된 이학규 장로는 인사에서 「70년대부터 이어온 춘천시성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힘 있는대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주환 목사는 축사에서 「하나님께서 걱정한 시기에 이장로님을 새총장으로 세우셔서 춘천시성시운동의 앞날이 밝아보인다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성시화운동을 활성화 하자」고 말하고 성시본부가 주관하여 춘천시내 온교회에 속한 고위 공직퇴직자들을 모아 전도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충환 목사
사무총장



이학규 장로
사무총장



Holy Club 3주년기념행사 은혜충만

-인천 청주 대전 회원 동참예배 합창, 성극공연-



춘천 Holy Club창립 3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행사가 삼천동 베어스타운 소양홀에서 6월19일 오후5시30분 성대하게 거행되었으며 다채로운 준비로 은혜가 충만하였다.

이날 기념 행사에는 인천, 청주, 대전 Holy Club에서 각 20~30명의 회원들이 동참하였으며 지역교회의 목사, 장로, 지도자들과 전현직 국회의원, 도의회위원장, 춘천시장, 경찰서장, CBS본부장등 기관단체장들의 참석으로 전국적인 행사가 되었다.

식전 행사로 CBS어린이 합창단의

울음을 겸한 합창은 참으로 아름다웠으며 이원호 목사님의 간단한 설교와 목사님들의 짧은 기도, 그리고 간결한 축사와 격려사는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기독교 연예인들로 구성된 믿음의 선교단의 성극은 은혜를 더하였고 인천 Holy Club회원의 기타합주 찬양과 몸찬양, 갈릴리 국악 선교단의 연주는 참으로 아름다웠으며 참석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믿음의 선교단은 정대홍 권사(단장), 장선일, 배태일, 김민경, 변은영, 박영진, 박정미, 이금주집사들이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합심 기도드린 장로님들

-춘천지역 장로 77명 청와대 방문-

춘천기독교 장로 연합회장 유태희 장로(제일감리교회)는 6월16일 77명의 회원들과 함께 상경 청와대 시설을 관람하고 영빈관에 초대받아 나라와 민족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드렸으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적인 삶에 대하여 대화를 나눴다.

김중권 장로(대통령 비서실장)님은 「나는 청와대에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믿음으로 직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에 장로님들은 깊은 깨달음과 도전을 받았다.

으며 조남진 장로님의 대표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켰다. BUS 2대로 청와대를 오가는 동안 찬송과 기도 소리가 그칠 줄을 몰랐고 조남진 장로와 이학규 장로는 신앙간증으로 모두에게 감명을 주었으며 춘천시 사회에 관한 대화들은 달리는 교회와도 같이 은혜가 충만하였다.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참으로 뜻있는 여행이었다고 자평을 아끼지 않았다.



이달의 강단 · 이달의 양식

“신앙인의 위기와 극복”

(왕상19:1~18 / 설교요약)



박 영 수 목사
(2군단한빛교회)

오늘 이시대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 위기, 전쟁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잘 참기만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모릅니다. 전쟁의 잣대미에서 일으켜주시고 IMF 경제위기를 주셔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고 북한 군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만드신 것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싸인임을 믿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위기를 만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오늘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아니하는 겸손함, 안 될 때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신들과 싸워서 승리한 그런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므로 승리했습니다.

엘리야는 올라갈대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추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엘리야가 기가 꺾어져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한숨과 탄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의 위기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쫓아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황후의 보복 맹세를 듣고 엘리야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라봤을때부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아이구 죽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위기와 문제는 넉넉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문제가 나를 뒤집어 엎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위기가 올 때에 넘어질 때에 왜 넘어지는가 원인을 파악해 보십시오.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는 내가 만족하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밀레니엄의 대응력을 갖는 교회를 위한 포럼

춘천YMCA, 동부장교회, CBS가 공동 주최하는 춘천기독교 포럼이 6월 14일 오후3시 도공영빌딩 소회의실에서 그 첫번째로 “한국 기독교 100년과 향후 100년을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전개하였다.

먼저, 김용복 한일대 총장의 발제강의를 듣고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으며 목사, 장로, 교수, 성도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지하게 포럼을 진행하였다. 주최측은 “새천년, 다시 기독교를 생각한다” “21세기를 향한 희망을 찾아서”란 주제를 걸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교회의 성과와 참회의 부분은 무엇이며 다가오는 21세기에 한국기독교가 이 사회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복음선교를 이룰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하였다.

김용복 총장은 한민족과 교회는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숫자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연적 시공간과 실제적 시공간이 동시에 쪼여지고 지구는 엄청나게 수평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기독교는 신학적으로 파격적인 대응을 해야한다. 그것은 성경을 카이로스적으로 읽는 것 즉, 목사설교를 듣는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성경읽기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제2차 포럼은 “환경의 시대, 기독교와 창조질서 보전”이란 주제로 6월28일 오후3시 동부교회에서 있었으며 김성수 사무총장(전 녹색소비자연대)의 발제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제3차 포럼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 기독교와 지역만들기”

제4차 포럼은 “문화의 시대, 기독교와 문화창조”에 관한 발제강의와 토론을 갖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큰 사랑

(롬9:1~3)



지 용 찬 목사
춘천 은혜장교회

매일 수박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어 수박팔 주인은 수박에 농약을 주사한 후 경고를문을 하나를 붙여 놓았다. 농약이 주사된 수박이 한통 있습니다. 주인은 “매일 후경고문이 붙었는데 ‘농약이 주사된 수박이 두통’ 있습니다. 한통은 주인이 한통은 도둑이 앵니다. 도둑놈 배”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대한다면 사회는 계속해서 분쟁과 분열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 32:1~7)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말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성지 이스라엘의 박물관 중 야드바네 뮤지움의 마지막 출구에 ‘망각은 포로생활로 이끈다. 이를 기억하는 비결만이 구원의 비결이다’라는 말이 이스라엘이 오늘이 있게까지 한 한 단편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6·25, 49 주년을 맞으며 어느 누구든지 이 민족의 통일을 원치않는 백성이 있을까요? 그러나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통일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통일보다 먼저 앞서서 양심회복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 종류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부자나 청년의 모습과 옥합을 켜 여인의 모습입니다. 한때 IMF로 인한 금모으기 운동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 유산 안몰려주기와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자식을 고충

유리타는 일터로 보내는 징발 옥합을 깨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고급웃이니, 그림 문제를 보면서 부자 청년에게 내가 계명을 다 지켰으니 네 많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을 하며 들어서는 청년의 모습의 사람들.

오늘도 예수님은 부패한 지도자, 타락한 민족, 양심을 잃어가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 이 민족을 향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너희의 선함을 통해 세상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라고(벧전 3:16)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되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커녕 기독교인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십자가의 큰 사랑을 지닌 진짜 크리스찬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가?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호산나 환영하는 무리들의 생각을 모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박히고 소리지르는 그들이 아닌가요? 교회의 길인을 알면서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바울도 도세도 저주를 받아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 하여야겠다는 큰 근심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도 알면서도 가는 큰 근심과 고통의 길이었습니까.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을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주님은 요일 3:16에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열왕기하 7장 말씀에 사마리아성이 포위되었고 성안에서는 오늘을 내아들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고 하는 비극의 현상이 보입니다. 또 성문어귀에 네 문둥이는 굶주림에 지쳐 이렇게 죽을 바에야 아람군대에 항복하고 먹을 것이나 먹고 죽자고 하며 아람군대로 발걸음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역사하시라 아람군대가 허겁지겁 도망게 되었고 문둥이 넷은 배불리 먹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왕하 7:9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 오늘 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를 우리가 잠잠하였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찌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당시의 문둥이의 천대받던 모습은 말 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 합니다. 쌀, 비료, 옥수수등을 주었는데서해안 교전이 웬말이며 관광객 민영미씨 사건이 웬말인가? 여러 가지 수모와 고통의 삶을 살았을 문둥이 넷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셨을 때 우리의 소행이 선하지 못하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 해야할 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 유산 안 몰려주기와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옥합을 깨는 모습과

— 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인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처럼

— 꺾박과 수모를 당해도 사마리아 성으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문둥이의 발걸음처럼

6·25, 49주년 민. 관. 군 연인 함에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도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큰 사랑 실천에 발걸음이 아니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계 뉴스

춘천시선교 부부찬양단 출발

6월 17일 오후 6:30 WORLD VISION(구 선명회) 3층 강당에서 성시(聖市) 선교부부찬양단을 창단하였다.

춘천지역 목사·장로 부부를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찬양단이 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찬양단은 단장 맹영웅 장로, 지휘 조병욱 장로, 반주 전선화 집사가 맡고

있으며 6월 24일 오후 7시 2군단 한빛교회 군관민구국 기도회와 7월 1일 오후 7시 30분 성시기도모임에서 "나의 산성되소서"라는 특별 찬양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찬양단원은 맹영웅 조병욱 박승택 장준홍 허종구 조충환 이학규 김문수 남궁수명 신상용 장로이며 조충환 목사를 지도목사로 추대하였다.



교회3층에 노숙자 목욕탕 설치로 이웃사랑

- 화요식당 운영 노인 60여명 먹이고 이·미용 봉사 -

중앙장로교회(사공정 목사)는 1996년 8월부터 매주 화요일 식당을 운영 노숙자와 노인 60여명을 먹이는 일을 여성교회가 차례로 봉사하고 있으며 음식제공은 "송광호철관구이"(윤태호 집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행여자와 노인들의 머리 청결을 위해 이·미용 봉사일을 하는데 이선자 전도사, 김종례 권사가 전담하고 있다.

교회에서는 이들의 목욕시설을 3층에 설치하고 편리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노숙자 8명 노인 60

여명을 대상으로 식사와 이·미용, 목욕일을 돕고 있다.

춘천에 있는 많은 교회가 시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을 할 때 교회의 부흥과 성시화가 앞당겨 이루어질 것이다.



농아들의 아름다운 수화 찬양

한국 임마누엘 농아인 교회협의회는 춘천지역교회 임대기금 마련을 위해 수화 찬양제를 마련하고 6월 21일 오후 6시 춘천교육대학교 종합학습관에서 수화로 찬양과 무언극을 하였다. "손은 다양한 언어"라는 표현처럼 소리없는 수화찬양은 무궁해처럼 아름다웠으며 거기에 락이나 랍같은 세속적인 소음이 없는 참으로 경건하고 호소력이 짙게 내포되어 있었다.

농아인 교회가 춘천에 세워지고 청

각장애로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수화로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라며 구령사역을 위해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번 행사는 춘천 임마누엘 농아인 교회가 주최하고 국제 특수 농아인 선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춘천 CBS, 춘천중앙감리교회, 춘천제일성결교회, 춘천교육대 Salt회가 후원하였다.

바자회 수익금으로 불우이웃 도와

- 7개 읍면동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

중앙성결교회 총여전도회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바자회를 열고 수입한 150만 원을 6월 21일 WORLD VISION 춘천 종합사회복지관(이순훈 관장)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사업에 동참, 라면 76상자, 떡, 사탕, 밀반찬을 직접 만들거

나 구입하여 동산면 지역, 남산면 지역, 신북읍용산리 지역, 신동 지역, 사북면 지암리 지역, 서면 지역, 동면 지역 등의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세대, 영세가정 세대에 전달, 그들을 위로 격려하고 삶의 용기를 주었다.



심장병환자 위한 음악회

6월 20일 오후 7시 30분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가 춘천 평화감리교회당에서 열렸다. 심장병으로 고생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고 끼여가는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음악인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으로 참여하였다. 밀알선교회

(심장병 어린이재단)가 주최하고 평화교회가 주관하였으며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팀들의 아름다운 공연이 있었다.

건강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은혜를 더욱 감사하고 기도와 물질을 드려 심장병 어린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사랑을 보내야 할 것이다.



단군상 설치에 대한 군목의 읍분

지난 2월부터 민족정신 회복, 효정신 회복, 조국통일기원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초·중·고등학교, 공원 등에 단군상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안양 기독교연합회를 시작으로 영천, 파주 등에서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기총(대표회장 : 지덕목사), 기윤실 등 교계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춘천에서도 국도변에 단군상을 세우

고 대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시하듯 하고 있어 춘천, 화천 기독교인 특히 청소년 기독교인들의 신앙심에 악영향을 주고 자극하는 것으로 국민의 화합보다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 한국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 위상승배를 위한 전단계인 단군상 설치 저지에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이라는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며 기도도 미신 위상을 허무는 일에 온교회와 성도들이 협력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계 뉴스

성시화 운동에 힘을 준 장로교 연합회

- 회장 장효근 목사 총무 김유식 목사 -

춘천지역 장로교단 연합회(회장 : 장효근 목사)에서는 7월 7일 오후 3시 30분 원 드비전 지부장실에서 한남수 회계 장로님이 직접 방문하여 사회복지 후원금으로 30만원을, 성서본부 선교비로 20만원을 기탁하였다. 한편 장로교연합회는 6월 26일 오후 1시 동성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장로교연합대회를 2000년 5월 11일 열기로 결정하였다.

총회결과 회 장 장효근 목사(동성교회)
부회장 박상호 목사(제일교회)
사공정 목사(중앙교회)
김홍규 장로(동부교회)
총 무 김유식 목사(한신교회)
서 기 지용찬 목사(은혜교회)
회 계 한남수 장로(서상교회)가 선출되었다.

♣ 성광장로교회 김광국 목사

중부지역 목사 장로 수련회가 7월 8~9일 춘천두산리조트에서 있었으며 전국장로 수련회가 19~20일에 열릴 계획이다.

7월 26~28일 춘천댐 은혜수련원에서 고등부 수련회를, 동춘초등학교에서는 중등부 수련회를 열어 성숙한 인격과 신앙의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 우두감리교회 김영원 목사

춘천북지방 남산교회 헌신예배를 6월 27일 저녁 화천제일교회에서 드렸으며 강원도감리교 군목단 위로회를 28일 본교회에서 가졌다.

7월 4일 전교인이 중보기도 요청서를 새롭게 제출하고 신앙생활 5대원칙을 생활화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7월 5, 6, 8일 저녁 7시 교회 기도실에서 중·고·청년부 여름성경학교 전달 강습회가 있었다.

♣ 제일장로교회 박상호 목사

7월 11일 리폼드 신학교 폴스교수를 강사로 초청,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정우 목사(춘신대학 사인원장)님이 통역을 담당했다.

유·초등부 수련회를 7월 18~21일 지암리 집다리를 자연휴양림에서 가질 계획이며 19일 육림공원 바자회를 위해 책, 옷, 장난감 등 유아용품 일체를 수집하고 있다.

청년부 수련회는 8월 2~4일 서면당리에서 있으며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가 박상호 목사를 강사로 8월 1일 본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 평화감리교회 한 군 목사

7월 4일 북한 성북감리교회 재건현판식 예배를 드렸으며 8월 9~12일에 고성 잠비리 수련장에서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계획하고 참가신청서를 받고 있다.

I.V.F 세계총회기념 책 불스초 초청가정사역세미나가 7월 12일 오후에 열렸으며 한 군 목사가 통역을 담당하였다.

7월 14일 저녁예배에 찬양그룹 A-MAN의 공연이 있었으며 한 군 목사는 15~30일까지 I.V.F WA(세계대회) 참석 차 용인에 출장 계획이다.

7월 18일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헌신예배를 시작으로 21일까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중앙장로교회 사공 정 목사

6월 26~27일에 주일학교 교사 철야기도회가 강남기도원에서 있었으며 강원노회(노회장 : 사공정 목사) 교육부 주최 '99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가 6월 28일~7월 1일에 주일학교 부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가자! 예수님에게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흥천회망교회에서 열렸다.

7월 4일 김문운안수집사님의 캐나다 방문보고회와 11일 윤건배안수집사님의 법무상식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표창배 목사 초청 1일 부흥회가 7월 30일(금)에 본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7월 31~8월 4일까지 자매교회인 일본 요시아신상교회를 사공정목사의 인솔하에 방문할 계획이다.

♣ 중앙성결교회 윤철중 목사

춘천지역 장로연합회 제14차 정기총회가 6월 27일 오후 3시 본교회당에서 열렸고 신임회장 허종구 장로, 총무에 박한병 장로가 선출되었다.

7월 4일 교회창립 65주년을 맞아 정인교박사 초청 설교콘서트 세미나와 기념예배를 드렸으며 제19회 강원서지방 남천노회 장로회 연합수련회가 7월 5~6일 횡성둔내 현대성우리조트에서 있었다.

본교회 고등부 수련회가 "성령의 능력받아 21세기 주역되자"라는 주제로 7월 26~29일 믿음기도원에서 열릴 예정이고, 8월 11~14일 청년부 수련회를 "밀레니엄, 세천년의 신앙"이란 주제하에 세미나실에서 가질 계획이며 대학부 생지학교에서 강원도 일대를 전도여행하게 된다.

♣ 석사감리교회 임택창 목사

동부연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가 6월 22일 원주평안교회에서 있었으며 25일 창조사학회 특강과 심야기도회가 있었고 6월 26일 대전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전국직장선교연합회의 선교대회에서 본교회 이영규 장로가 춘천직장선교사제를 발표하였다.

여름성경학교가 7월 19~21에 있으며 중·고등부 수련회는 25~28일까지 열릴 계획이다. (조선하 기자)

춘천 기독교 장로연합회 새회장 선출

- 회장 허종구 장로, 총무 박한병 장로 -

유대회 장로(전 연합회장)는 6월 27일 오후 3시 중앙성결교회당에서 장로연합회 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였다.

앞으로 춘천의 장로연합회가 진정한 연합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춘천 성시화운동에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성도들은 바라고 있다.

신임회장 허종구 장로(중앙성결교회)
부 회장 김정하 장로(성광장로교회)
최종인 장로(순복음춘천교회)
박승택 장로(서부감리교회)

황병호 장로(제일장로교회)
이성용 장로(소양성결교회)
박한병 장로(중앙성결교회)
김부회 장로(광장감리교회)
이무식 장로(석사감리교회)
김홍규 장로(동부장로교회)
심인섭 장로(신성감리교회)
김기선 장로(소양성결교회)
김동열 장로(평화감리교회)
임영일 안수집사(춘천침례교회)
이학규 장로(석사감리교회)
이창용 장로(제일장로교회)
유태회 장로(제일감리교회)



CBS소년소녀 합창단 미국 순회공연

- 단장 신종철 안수집사 · 단원65명과 함께 -

춘천기독교방송(한국인 본부장)의 어린이 합창단은 창단 이후, 교회와 공연장 그리고 방송으로 음악연주를 통한 복음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며 금번 아름다운 성가곡과 한국민요곡을 가지고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미국 여러지역을 방문, 연주회를 가질 계획이다.

신종철 단장은 사전홍보 및 공연섭외를 위하여 6월 27일 출국, 미국관계자들과 협의를 마치고 7월 6일 귀국하였

다. 이번 연주곡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등 성가 11곡 "강강술래" 등 한국민요 12곡을 부를 계획이다. 7월 21일 청운교회에서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후원: 한국일보, 크리스천투데이, LA CBS선교후원회)로 한인들을 대상으로 연주하고 7월 25일 11시 춘천선교교회에서 주일예배후 특별찬양 연주를 하며 오후 6시 크리스탈 Church에서 미국인을 위한 연주회를 할 계획이다.

'99교회 여름성경학교 준비완료

춘천지역 각 교파와 교단 그리고 어린이 전도협회 주관으로 6월 14일부터 7월초까지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마치고 7월중순부터 문을 열게 될 유·초·중·고등부 교회학교 교육준비를 완료하였다.

매년 운영하고 있는 여름학교가 연례행사로 끝나지 말고 건강한 기독교인을 육성하는 전인교육 기회가 되고 사회문화에 참석 당하지 않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성도들은 말하고 있다.



기독교

직장선교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 수상

- 6월 22일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

강원도 기독교 미술인협회 회장이며 강원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인 이정수 교수는 한국 기독교 미술인협회가 주관하는(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후원)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을 6월 22일 오후5시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수상하였으며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어린이회관 춘천미술관에서 95년 이후 제작한 작품 중에서 30여점으로 제4회 개인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춘천시민들의 미술에 대한 이해증진과 정서함양에 한 몫을 하였다고 작품을 관람한 시민들은 말하고 있다.



이정수 작가

- 개인작품전 3회('79.'93.'95)
- 인도트리엔날레전('85 뉴델리)
- 쌍파울로 비엔날레전('83 브라질)
-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83~'95)
-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 강원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
- 주소 : 서울 노원구 월계동 429-32(1층)
- 전화 : (H) (02) 934-0650
- (O) (0361) 50-8720



왼쪽부터의 예수님, 어린이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문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왼) 신부 목자 예수님

불우이웃들에게 용기주는 한국복지재단



이만복 지부장

한국복지재단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이만복 지부장)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정서적 경제적 후원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1948년 아동복지사업으로 시작하여 50년간 30여만명의 불우아동을 도와왔으며 현재는 불우아동, 장애인, 무의탁노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연변까지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불우이웃 결연사업은 1981년부터 정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지금 귀하의 손길이 간절한 이들이 있다. 매월 1만원과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작은 사랑의 나눔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 후평3동 석사3지구 內 한국복지재단 강원지부

후원 신청을 원할 경우 다음전화를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EL 242-0051~3
PAX. 242-0054

전국 직장연 선교대회에 사례발표

- 발표 이영규 장로, 회원 500명 참가 -

이영규 장로(춘천연합회장)는 6월 26일 오후 3시 30분 대전종합청사회의관에서 열린 "99전국직장선교대회"에 춘천연합회의 발전과 선교전략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사례는 슬라이드와 차트로 직장에서 바로살기운동 10개 실천덕목을 소개하였다.



- 첫째, 기도로 하루업무 시작하기
- 둘째, 내가 먼저 인사하기
- 셋째, 만나는 사람 예수님처럼 모시기
- 넷째, 어려운 동료 알아보기
- 다섯째, 업무능력 인정받기
- 여섯째, 공공물건 아껴쓰기
- 일곱째, 간소한 식사하기
- 여덟째, 공의는 세우고 부정은 멀리하기
- 아홉째, 동료에게 예수전하기
- 열번째,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이루기

연합회와 각신교회에서 벌이고 있는 특기할 사항은 첫째, 춘천시시화갈 위한 매주 목요일 기도모임 참석, 합심기도 둘째, 춘천시시신문 발행 및 문시선교 동참 셋째, 춘천중보기도학교 연수참가 넷째, 직장인 장오예배(월1회)에 전회원들이 동참하고있다.

직장선교회는 동호인 친목단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단체이며 직장의 모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직장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宣教會(선교회)가 될 것을 역설하였다.



청주 Holy Club 창립 2주년 기념행사 성대히 개최

청주 Holy club 노무수 회장은 7월 13일 오후 7시 청주 수곡 침례교회에서 춘천, 인천, 대전 회원들과 청주시 회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창립 2주년 예배와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다.

춘천에서는 조남진 상시본부장(춘천홀리클럽회장) 이학규 상시본부사무총장 최종인장로 신종철 총무 등이 참석하였다.

시민광장 시민과 함께

서울구치소 재소자의 신앙간증

- 최고수 최정수의 회개 -

저는 1996년 10월 말경에 세상을 떠돌게하게 했던 "막가과" 주범 최정수입니다.

10월 초순에 구속된 후 97년 12월 중순경에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못한 인생이 과연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가를 수치해 반문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결론은, 과거의 저는 '아니오'였지만 벌레만도 못한 저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변화된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언제 떠날지 모를 절박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복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미력하나마 간증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용서를 받지 못할 중한 죄를 지은 사형수입니다. 남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제가 무슨 할말이 있었습니까? 구속된 후 상당한 기간동안 죽을 생각과 사회에 대한 적개심으로 자포자기를 하였을 때 저를 붙잡아 여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기를 권하였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반감만 생겼습니다.

여러모로 죽을 생각만 하였고 주변의 냉담 속에 하루하루 지내던 중 끊임없이 저에게 다가가 말씀을 전해주시는 교도관님과 종종 찾아오신 목사님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한 저는 용기를 내어 제가 생활하고 있는 좁은 방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방에서 동료 몇명과 함께 예배드리던 중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주일은 오전예배만 드렸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저녁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며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고백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동과 함께 주홍같이 붉은 죄, 그래서 이 세상 법에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저의 죄 모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확신이 왔으며 또한 그 예배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저의 마음을 보시고 붙잡아 여기에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제가 있던 거실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모두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생활을 하면서 울어본 적은 딱 두 번이었습니다. 불변하신 몸을 이끌고 찾아오신 할머니를 뵈었을 때와 지금 말씀드린 순간이었습니다. 재판도중 사형을 선고받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이 흉악한 죄인, 지금도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절로 눈물이

흐릅니다.

이런 체험을 한 후 저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과 함께 그토록 무섭게 저를 짓눌렀던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제가 저지른 흉악한 죄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이 신앙간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큰 계획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 계획은 바로 저같은 못한 인생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곳은 자유만 없다 뿐이지 하루 세끼 꼬박 챙겨 먹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생활이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로 인하여 고통받은 가족이 집견을 때와 또는 편지를 통하여 제가 영접한 예수님을 전하여 지금은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현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은 훗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이 땅에서 못 나눈 가족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장 가슴아프게 하는 것은 저로 인하여 슬픔을 당한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죄책감은 아직도 아니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각각 들리는 제 생명의 시간 속에서 저 자신은 걸어갈 것입니다.

가슴에 빨간 명찰을 달고 가슴속에서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형수 3758번 최정수가 아니라, 이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온갖 보화로 장식된 그곳,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그 나라에 곧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진도자 최정수로 변했습니다. 아직 허물이 많아서 변해야 할 부분이 많은 저의 모습입니다만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영적인 어머니 김숙자전사님과 가까이서 저의 믿음생활을 도와주고 계신 서울구치소 기독교교회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매주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제가 흘린 피의 대가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며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기독교세진회 "은혜로" 7월호에서)

창조 질서회복 현장탐사 자료 강연으로 인기상승

- 창조사학회, 2년전 창립 -

창국원 창조사학회 회장 초청강연회가 6월 25일 오후 8시 춘천석사감리교회에서 있었다. 이날 강연회는 강의와 슬라이드 상영으로 이루어졌으며 약 6개월간에 걸친 한민족의 기원을 신명균 기획실장이 성경기록에 입각한 노아홍수 이후 샘족의 이동경로의 대담사를 보고형식으로 강의하였다.

이는 우리민족의 기원을 찾는다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진화론의 중심 이론인 문화병행 발생설을 비판하고 인류의 문화가 노아홍수 이후 한 뿌리에서 이동해 왔음을 증명하는 문화이동설을 설명함으로써 창조론을 정립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창조사학회는 인본주의적 역사관에 기초해 왜곡된 인류사를 바로잡고 성경역사 사건이 사실임을 증명하여 창조질서를 회복하며 학문적 탐구와 검증 등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건강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신앙운동을 목적으로 2년전 창립되었으며 춘천에서는 처

음 강연이었다. 창조과학회가 물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창조론을 증명한 데 비해, 창조사학회는 성경 기록의 역사적 진실을 현장탐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인문사회적 검증작업과 역사학적 고증작업을 통해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하였다.

현재 강원지회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학규 장로가 협력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 회원들은 창조사학회의 강연과 자료를 통하여 궁금증을 풀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창조사학회 강연신청 및 자료구입

☆ 서울 02-649-5415

(FAX 649-5416)

☆ 강원지회 0361-262-4822

011-370-4822(이종성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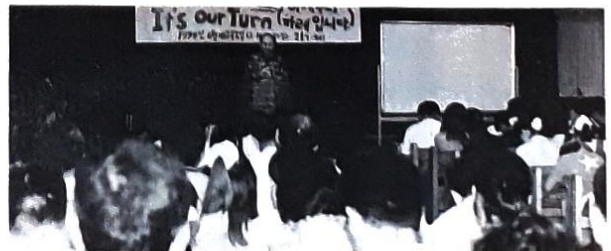
http://www.theorich.or.kr

E-mail : kds999@unitel.co.kr

JDM 세계선교 일꾼교육

국제선교 훈련원은 6월 3, 10, 17, 24일(4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까지 춘천지역의 직장기독인, 평신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세계선교 세미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교전략 등을 교육시켰다.

It's Our Turn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라는 주제로 실시한 세미나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선교능력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전국 예수캠프에서 믿음을 키우자

- 8월10일부터 춘천실업고등학교에서 -

전국 교육자 선교교회와 예수사람 선교회는 제14회 전국 예수캠프를 8월 10일 오전10시부터 13일 12시까지 자연이 함께있는 춘천시 신북읍 울문리에 소재한 춘천실업고등학교에서 갖는다.

"강한 용사"라는 주제아래 이제일목사, 박상철목사, 유관지목사, 박완신교수, 전제현장로 등 능력있는 강사진의 열띤 강의와 C.C.M.가수 김승희, with, 강명식, HOLY KIDS 찬양팀

찬양은 참가자들을 깊은 은혜에 빠지게 할 것이다.

3일동안 조별모임, 찬양모임, 교제, 산책, 성경공부 워크샵, 학원복음화 토크쇼, 올림픽, 북한교회 위한 심포지움, 마임공연, C.C.M. concert, 아침예배, 저녁집회 종합예술제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전화 : 02-780-8402 / 0361-244-5400(예수사람운동)



우리의 꿈 우리의 생명 춘천시목

예수나무 동산 만드는 장로시장의 믿음과 꿈 - 산딸나무(십자가 나무) 2,500주 심어 -



배 계 섭 장로
(춘천시장)

산딸나무가 십자가를 만든 나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배계섭 장로(춘천시장)는 일명 예수나무라 부르는 산딸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춘천시 전역에 나무를 통한 믿음의 동산을 조성하려는 꿈의 실현을 위하여 1996년도부터 매년

5~6백 본을 시내공원 가로변 녹지대 공한지 등에 식재하여 현재 2,500주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다.
산딸나무는 낙엽교목으로 가지가 수평으로 퍼지고 수피가 아름답고 내한성이 강해서 춘천지역에 적합한 수목으로써 6월에 백색꽃을 피우고 9~10월에 딸기모양의 열매를 맺으며 나무와 꽃과 열매는 호수와 조화를 이루어 더욱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배계섭장로가 산딸나무에 애정을 갖게 된 것은 이범찬집사(전 국가정보대학원장)가 정성껏 만든 산딸나무 십자가를 선물받고 부터였으며 산딸나무를 통하여 가시적인 춘천성시화에 일조하겠다는 생각으로 십자가 나무식재를 계획하게 되었고 이 지역의 기후풍토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매년 많은 양을 식재하게 된 것이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 것처럼, 산딸나무가 춘천의 성시목(聖市木)으로 기독교 연합회의 지정을 받고 보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산딸나무의 학명은 Cornus Kousa Buergeri (英) Korean Dogwood, Japanese Dogwood (漢) 四照花이며 중부이남의 산야(山野)에서 자생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 수고 12m 직경 50cm 정도에 달한다.
대부분 표고 3~5백m에서 많이 분포되고 공해에도 잘 견디지만 건조한 곳에서는 생장(生長)이 불량하다. 잎은 계란형이고 길이 5~12cm 넓이 3~7cm이며, 꽃은 전년에 자란 가지 끝에서

피고 딸기모양의 진분홍색 열매는 직경 1.5~2.5cm로 단맛이 높아 가을의 입맛을 돋운다. 목재는 재질이 단단하고 무늬가 좋고 나이테가 치밀하여 조각제 기구제로 이용된다. 백색의 꽃은 십자모양이며 예수님이 이 나무 십자가에서 운명하였다하여 성스러운 나무로 불리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실생(實生)과 삽목이 가능하며 가을에 익은 열매를 채취, 종자만을 정선하여 노천에 매장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면 발아되며 정원수, 공원수, 가로수로 적합하다. 춘천의 모든 교회, 정원, 묘지, 산야에 식재하고 널리 보급되어 성시목으로 가꾸어질 수 있으면 한다.

(조선하기자)



공지천 순환도로변에 식재한 산딸나무



삼천동 시민공원에 식재 성장하고 있는 십자가 나무

춘천성시화를 소망하는 노권사님의 정성

- 95세 원로권사님 10만원 현금에 감동 -

95세의 어종옥 원로권사님은 오래전부터 춘천성시화를 위해 기도의 단을 쌓아 오셨으며 우리의 소망인 춘천성시화의 씨를 심는 믿음으로 정성껏 마련하신 현금(10만원)을 보내오셨다. 아들 이학규장로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성시본부 일꾼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노중의 귀한 물질이 오병이어가 되어 춘천성시화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믿는다.

"춘천성시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믿음의 씨를 심습니다.
주여 이 도시가 주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소서."

춘천석사감리교회

원로권사 어 종 옥

도경찰청 선교회 성시신문돕기로 결정

강원도 지방경찰청 직장선교회(회장 한성옥 안수집사)에서는 춘천성시신문 발행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그 뜻을 전달하였다.

춘천 장로 테니스회 모임

춘천지역 장로님들의 건강과 복음 선교활동을 위한 장로테니스회 조직 발기인 모임이 7월 3일 오후4시 도교육위원회 테니스코트에서 있었다.
테니스를 통하여 건강을 얻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장로님은 누구나 환영한다는 관계자들의 말이다.
발기인 : 이영일, 이춘석, 이영석, 맹영용, 조병옥, 김부희, 박두빈, 박승택, 허광웅, 장준홍장로 등이다.

전국 기독교직장인 여름수양회

예수제자운동 '99 전국 기독교직장인 여름수양회를 8월 2일~6일까지 남양주시 천보산 청소년 수양관에서 실시하며 "깨어나는 직장인 미래를 이끄는 예수백성"이란 주제로 성경강해(스바나서)·특강·가정학교(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결혼예비학교)·소그룹 활동, 특별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자운동 대표 윤태호 목사의 주례강의와 50명 리더에 의한 소그룹 성경공부 시간이 있다.
회비는 일반인 7만원(부부 11만원), 학생 3만원, 초등생미만 1만원이다.
▶ 남양주시 천보산 청소년수련관 ☎(0346)528-8495

신앙심으로 뭉친 31년의 3B Club

- 친교보다 복음선교우선, 회원 24명 힘모아 -



장 준 홍 장로
(3B Club회장)

196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Club 활동은 미미하였으며 8·15해방 이후 YMCA활동이 대표적인 기독교인들의 친교 및 사회활동 모임체가 되었다. 이 때에 춘천에도 Y·s man으로 알파, 베타, 감마 Club이 연영총을 따라 조직되었다.

여기서 뜻깊은 젊은 믿음의 형제들이 독자적인 친목 모임체를 갖기로 하고 1968년 4월17일 요선동 취영루에서 총회를 열고 3B Club을 탄생시켰다.

3B Club의 이름은 Bible(성경 말씀), Body(행 하는 사람), Blessing(축복)의 첫 글자 3개를 모아서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초기 회원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로 구성되어 믿음과 교제를 나누는 형제와 같은 관계를 맺고 즐거움으로 월 1회 회원 가정을 방문하여 지금까지 모이고 있다.

초창기의 모습은 총각들이 대부

분이었고 교파를 초월하여 모여서 가정과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와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월과 함께 더욱 튼튼히 기반을 다지는 아름다운 3B Club으로 성장하였다.

30여년이 지난 지금의 회원들의 모습은 거의가 교회 장로들로 봉사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게 활동하는 3B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으며 그간 3B Club을 거쳐간 회원들도 20여명에 이른다.

이제는 직장에서 거의가 퇴직하여 할아버지들이 되어 자녀손들이 모이면 80명은 족히 되는 3B 가족들로 변장하였다.

오늘 여기까지 걸어 온 회원들은 인생의 금자탑을 쌓아올린 참으로 귀하고 값진 보물로써 교회와 사회를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재미 있었던 일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1970년 어느날 밤 춘천댐 회원(장준홍 장로)덕에서 모임을 마치고 버스가 끝나서 용산리까지 걸어 나오면서 장난기가 발동하여 가족피리를 터뜨리자 여기저기서 경쟁이라도 하는 듯 소리가 요란하여 배꼽을 쥐었으며 낭떨어지에 떨어질 뻔한 일이 생긴다.

앞으로도 3B Club은 뜨거운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선교, 사회 봉사, 회원들의 친목을 두텁게 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 3B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장준홍 회장은 말하고 있다.

그동안 3B는 장학금 지원, 무의탁 노인 및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 94년 1월5일~12일 로마 성베드로 성당앞에서 기념 촬영

선도, 교도소 위문, 군 선교등 많은 활동으로 일하여 왔으며 계속 선한 사업에 힘쓰고 춘천 성시화 운동에도 적극 참여 할 것이다.

특히 뜻깊은 일은 1994년 1월5일부터 12일까지 부부동반하여 성지를 순례한 일이었으며 오래동안 기억 될 믿음의 산 체험의 기회가 되었다.

3B Club은 교파를 초월한 기독교인들의 모임체로써 춘천에서는 가장 오래된 성공적인 Club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 회원 구성은 부부 함께 총 24명이며 남자회원은 다음과 같다.

이학규 장로(석사교회) 전 초등학교장 교육자 선교회 강원지방회장 춘천성시본부 사무총장

장준홍 장로(광명감리교회) 3B Club회장 전 한전과장

조병욱 장로(우두감리교회) 도

농업기술연구원 지도위원

이순훈 장로(제일장로교회)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장

홍성운 장로(석사감리교회) 한국은행 전 과장

신상용 장로(석사감리교회) 승의유치원 원장

김문수 장로(석사감리교회) 전 양구초등학교 교사

이용규 장로(석사감리교회) 영광한의원 원장

성낙섭 권사(우두감리교회) 춘천라사 사장, 전 시의원

정성철 권사(중앙감리교회) 한진전업사 사장

장길이 권사(중앙성결교회) 춘천타올샌타 사장

이판호 권사(석사감리교회) 3B Club총무, 알로에 마임 강원지역대표



▲ 춘천 어린이회관앞에서 3B클럽회원들의 모습



▲ 이집트기자의 피라밋·스핑크스 앞에서 기념촬영